



VACHERON CONSTANTIN

GENÈVE, DEPUIS 1755

바쉐론 콘스탄틴

메티에 다르 빌레 루미에르

Métiers d'Art Villes Lumières

- 워치메이킹에 처음으로 도입된 그랑 피 에나멜링 테크닉의 새로운 예술공예 기법
- 전세계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의 조감도
- 제네바 홀마크 인증

새로운 메티에 다르 빌레 루미에르 컬렉션은 창의성으로 넘쳐나는 도시들로 떠나는 밤의 여정이다. 그윽한 그림자 빛 에나멜 옷을 입은 다이얼 표면 위에 다채로운 색상의 에나멜 파우더로 밤의 도시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의 조감도를 표현했다. 전통적인 그랑 피 샹르베 에나멜링 기법은 장인이 일일이 손으로 도포한 에나멜 파우더와 만나 기존 파인 워치메이킹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예술 기법을 보여준다. 사실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제네바 홀마크 인증을 받았으며, 새로운 영감을 통해 전통적 기법들이 계속하여 발전해 나가는 예술적, 창조적 분야에 새로운 지평선을 연다.

메종은 두 가지 특별한 예술의 조우를 생각해냈다. 바로 3 세기를 거쳐 이어져 내려온 바쉐론 콘스탄틴 장인들의 그랑 피 샹르베 에나멜링 기법과 수작업으로 도포되는 진귀한 에나멜 파우더의 만남이다. 골드, 진주, 플래티늄, 다이아몬드 파우더 입자를 정밀하게 추출하여 에나멜에 뛰어난 광택을 부여하는 기법이 워치메이킹에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빛을 나타내는 밝은 점은 극도의 정밀함으로 표현되었으며 광활하고 장엄한 도시 전경을 구성한다. 이 빛을 통해 도로, 강, 랜드마크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제네바 홀마크 인증을 받은 메티에 다르 빌레 루미에르에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인하우스 칼리버가 탑재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파인 워치메이킹 테크닉에 부합하는 정교한 마감처리로 영광스러움을 더했다. 이 새로운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모델은 제네바, 파리, 뉴욕, 베이징의 마법과도 같은 각 도시의 빛나는 밤하늘에 대한 헌사이며, 이러한 밤의 여정은 다른 도시를 향해 계속 될 것이다.

예술 공예에 대한 지속적인 사명감

메티에 다르 빌레 루미에르 컬렉션은 예술 공예에 대한 바쉐론 콘스탄틴의 오래된 전통을 영속시키는 작품이다. 1755 년 메종의 설립자 장-마크 바쉐론이 제작한 브랜드 최초의 시계 또한 아라베스크 모티브가 섬세하게 인그레이빙 되어 있다. 그 이후로 지난 3 세기 동안 보석 세공인, 에나멜 장인, 기요세 장인, 인그레이빙 장인들은 이러한 극히 드문 전문적 기술을 개발하고 계승해왔다. 예전과 같이 오늘날에도 장인들은 그들의 손재주로 빛어낸 성공적인 창작품들로 하여금 워치메이킹 예술의 걸작품들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장식 기술들은 예술적 테크닉과 창의성을 워치 다이얼 위에서 결합시키고 광택, 일본 전통 래커 기법, 조각, 보석 칠보 공예와도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예술의 정신을 모두 어우러지게 하는 장인들의 힘을 필요로 한다. 메티에 다르 컬렉션은 이러한 전통의 명맥을 이어옴과 동시에 바쉐론 콘스탄틴이 예술 공예의 새롭고 현대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영역을 탐구할 수 있게 한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DEPUIS 1755

도시의 조감도

바쉐론 콘스탄틴은 예술적 영향력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도시들의 야간 전경을 그림으로 묘사했다. 세밀하게 도포된 에나멜 파우더 입자는 장인들이 지닌 고도의 수공 기술을 보여준다. 이로써 시계의 표면은 이상적인 높이에서 바라본 각 도시의 광경을 담아냈으며 감성이 깃든 도시의 윤곽을 사실적으로 표현해 냈다. 예술작품의 축소판인 이 제품은 각양각색의 도시 구역들과 심지어 교통량까지 다양한 빛의 종류로 진정한 '빛의 지도'를 구현했다.

그랑 피 에나멜링

바쉐론 콘스탄틴의 에나멜 장인은 거리, 공원, 강물이 흐르는 형태를 강조하기 위해 각 다이얼에 샵르베 에나멜 기법을 사용하였다. 골드 다이얼 표면을 윤곽에 따라 수공으로 파낸 뒤 반투명한 에나멜 층을 여러 번 도포하고 에나멜을 코팅 할 때 마다 다이얼을 섭씨 850°C 의 가마에서 매번 구워냈다. 유리 가루와 금속 산화물을 함께 녹여 형태를 잡고, 또 다시 열을 식히며 에나멜은 유리화 되는데 이 때 다이얼이 깨지거나 형태가 변하는 불가피한 결함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중요하고 철저한 원칙 하에 이루어 지는 공정에는 장인들의 직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메디에 다르 빌레 루미에르 컬렉션에서 에나멜 장인들은 밤의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미묘한 투명함과 어두움의 그늘을 결합시키는데 도전했다.

어둠에서 빛나는 빛줄기

바쉐론 콘스탄틴은 일본인 예술가 요코 이마이를 초청하여 그녀의 예술작품과 에나멜 장인들을 연계시켰다. 일본의 장인들로부터 트레이닝을 받은 그녀는 캘리그래피에서 영향을 받은 캔버스 페인팅 및 에나멜 파우더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예술적 테크닉을 발전시켰다. 바쉐론 콘스탄틴을 위해 그녀는 고도의 집중력과 세밀함이 요구되는 매혹적인 명암대비 효과를 창조해 내었고 이러한 과정을 워치 다이얼의 에나멜에 최초로 접목시켰다.

진귀한 에나멜 파우더로 이루어지는 테크닉은 균형과 순수함에 대한 탐구인 캘리그래피의 근본적인 원칙으로부터 발전되었다. 파우더 입자는 가느다란 바늘로 표현 되었으며 비밀리에 유지되어온 기술로 완성된다. 완성된 지도 위의 빛나는 마술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며, 모든 디테일은 완벽히 제자리를 잡고 있으며 더 이상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완벽함을 자랑한다.

각 파우더의 입자들은 다양한 각도와 불빛 아래서 확인을 거친 후 각 파우더가 지닌 빛과 사이즈에 따라 선택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욱 뛰어난 광채와 실감나는 묘사를 이끌어낸다. 우선 미세한 골드 입자를 뿌려 광채 나는 배경바탕을 만든다. 그 후 다이아몬드와 플래티넘 파우더를 잘 도포하여 밝고 어두운 효과를 만들어내고 군데 군데 반짝이는 진주 조각으로 강조 효과를 준다.

이 소재들을 통한 다양한 밝기 표현으로 에나멜 위 반짝이는 부분의 사이즈와 위치를 조절하고 다이얼에 생명과 따뜻함을 불어넣는다. 에나멜 베이스의 겹겹으로 쌓인 골드 층 사이에는 수 만개의 입자들이 불빛 아래 빛을 발한다. 다양한 어두움의 표현과 광채의 강도를 조절하는 에나멜 파우더의 입자는 그랑 피 에나멜 배경의 어두운 그림자와 서로 상호 작용을 일으킨다.

에나멜 구성요소들의 광채는 다이얼의 중심에서 바깥쪽 가장자리를 향해 서서히 부드럽게 퍼져나간다.

3 개월 이상 소요되는 끈기 있는 수작업과 예술 공예로 탄생한 각각의 다이얼은 진정한 독창성을 보여준다. 제품의 프레젠테이션 박스에 들어있는 확대경을 통해 아름다운 디테일을 만들어낸 기술력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제네바, 파리, 뉴욕, 베이징의 빛

도시로의 비행은 에나멜 페인팅 분야에서 단연 최고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곳이자 워치메이킹의 발상지인 제네바로부터 시작한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캐비노티에와 메종의 워크샵이 위치한 이 도시의 중심부인 생제르베 지역에서 탄생하였다.

그 다음은 “빛의 도시” 파리이다. 예술가, 철학자, 작가들이 사랑하는 도시이자 그 누구도 모방 할 수 없는 고유의 우아함으로도 잘 알려진 곳이다. 이 도시의 전경은 에투알 광장, 샹젤리제, 세느강 그리고 빛에 둘러싸인 에펠탑과도 같은 아니코닉한 랜드마크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으며 공중에서 바라본 조감도는 골드로 인그레이빙 되어있다.

다음 여행은 모든 것이 가능한 꿈과 열정의 도시, 뉴욕으로 이어진다. 그랑 피 에나멜 위에서 반짝이는 수많은 점들은 어둠에서 빛을 발하는 맨하탄과 센트럴파크, 허드슨 강, 부르클린의 모습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마지막 여정은 반짝이는 빛으로 가득한 베이징이다. 제국의 중심에서 빛나는 빛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증명하듯 장관을 자아낸다. 특정 기념비, 랜드마크, 활발한 거리들의 강렬한 빛은 자금성을 둘러싸고 있으며, 자금성은 은은한 빛으로 표현되어 더욱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에나멜과 진귀한 파우더로 세밀하게 지도를 표현하여 다이얼 위 자금성의 오문, 천안문, 천안문 광장을 구분 할 수 있다.

탁월한 기술력

메티에 다르 빌레 루미에르 컬렉션의 모든 타임피스는 제네바 홀마크 인증을 받았다. 이는 절대적으로 중립적인 독립된 기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한 증표이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인하우스 셀프-와인딩 칼리버 2460 SC 는 시, 분, 초를 나타낸다. 투명 케이스 백을 통해 브랜드의 시그니처 엠블럼인 말테 크로스에서 영감을 받아 세심하게 장식된 22K 골드 진동추를 감상할 수 있다. 시계 외부, 내부의 모든 부품들은 베벨처리, 원형 그레인처리, 폴리싱 등 최상의 워치메이킹 기술로 정교하게 마감 되었다. 무브먼트는 화이트 골드 케이스로 보호되어 있다.

메티에 다르 빌레 루미에르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순수한 전통을 지켜옴과 동시에 시계학적, 예술적 창의성 보여주는 컬렉션이다. 축소 된 예술작품과도 같이 빼어난 자태의 다이얼은 끊임없이 영감을 주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워치메이킹의 예술성과 매혹적인 도시들의 사실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TECHNICAL DATA

Métiers d'Art Villes Lumières

References

86222/000G-B101 – Geneva
86222/000G-B104 – Paris
86222/000G-B105 – New York
86222/000G-B107 - Beijing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s
Only available in Vacheron Constantin Boutiques

Calibre

2460 SC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self-winding
26.2 mm (1 1/4") diameter
3.6 mm thick
Approximately 40 hours of power reserve
4 Hz (28,800 vibrations/hour)
182 components
27 jewels

Indications

Hours, minutes and center seconds

Case

18K white gold
40 mm diameter, 8.9 mm thick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 bar (approx. 30 meters)

Dial

18K gold dial with Grand Feu champlevé & translucent enamel and powder of precious stones (diamonds, pearl) & precious metal (gold, platinum) filled by hand

Strap

Black Mississippiensis alligator leather with alligator inner shell, large square scales

Buckle

18K white gold buckle
Polished half Maltese cross-shaped

Presentation box

Luxury model

Accessory

Delivered with a magnifying glass

The name of the city is engraved on the back of the timepiece